

[보도자료]

2026-10-06

라이프자산운용 "주주제안 핵심은 자사주 매입·소각...우선주는 현실적 대안"

"우선주 특별대우 아닌 자사주 매입 현실화 방안"...2015년 삼성전자도 유사 방식 시행

라이프자산운용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제안의 핵심이 "자기주식 매입·소각의 최대화"라고 밝혔다. 우선주 매입·소각은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며, 보통주 매입·소각을 병행하는 방안 역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라이프자산운용은 6일 게시한 입장문에서 "제안의 핵심은 자기주식 매입·소각 최대화"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함께 소각하기로 결정한다면 적극 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앞서 9월 14일 삼성전자 이사회 및 경영진에 주주서한을 송부했으며, 29일 삼성전자로부터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할인과 이에 따른 우선주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수령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9월 주주서한에서도 자기주식 매입·소각이 현금배당보다 우월한 주주환원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 5월 이후 부진했던 엔비디아 주가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중 우선주에 대한 매입·소각을 우선적으로 요청한 것은 삼성전자가 직면한 지배구조 제약에서 벗어나 제안의 핵심인 자기주식 매입·소각 최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라이프자산운용은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비금융계열사 보통주를 합산 지분율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지배구조 제약 때문에 삼성전자가 보통주 매입·소각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같은 재원으로 주주가치를 더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공동대표는 "우리 제안의 목적은 우선주를 특별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최대화하자는 것"이라며

“보통주와 우선주를 함께 매입·소각한다면 당연히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보통주와 우선주는 서로 다른 종류주식인 만큼, 종류주식별 매입 비율을 달리 하는 것을 곧바로 특정 주주에 대한 차등대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프자산운용이 우선주 매입·소각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한 것도 삼성전자 스스로 종류별 매입 비율을 다르게 설정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자기주식 매입 프로그램 당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22% 낮게 거래되자 1회차 매입 물량의 약 35%를 우선주로 채웠다.

당시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에 비해 10% 이상 낮을 경우, 우선주 매입 비중을 높임으로써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소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향후 주당배당금의 증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끝

자료문의: 박주홍 인게이지먼트팀장 변호사(jhpark@investlife.com)

이민호 인게이지먼트팀 과장(minori@investlife.com)

배포시점: 즉시

[참고]

삼성전자의 2015년 주주환원 정책 시행계획 발표 관련 보도자료(삼성전자 뉴스룸)

<http://bit.ly/30Ln88J>